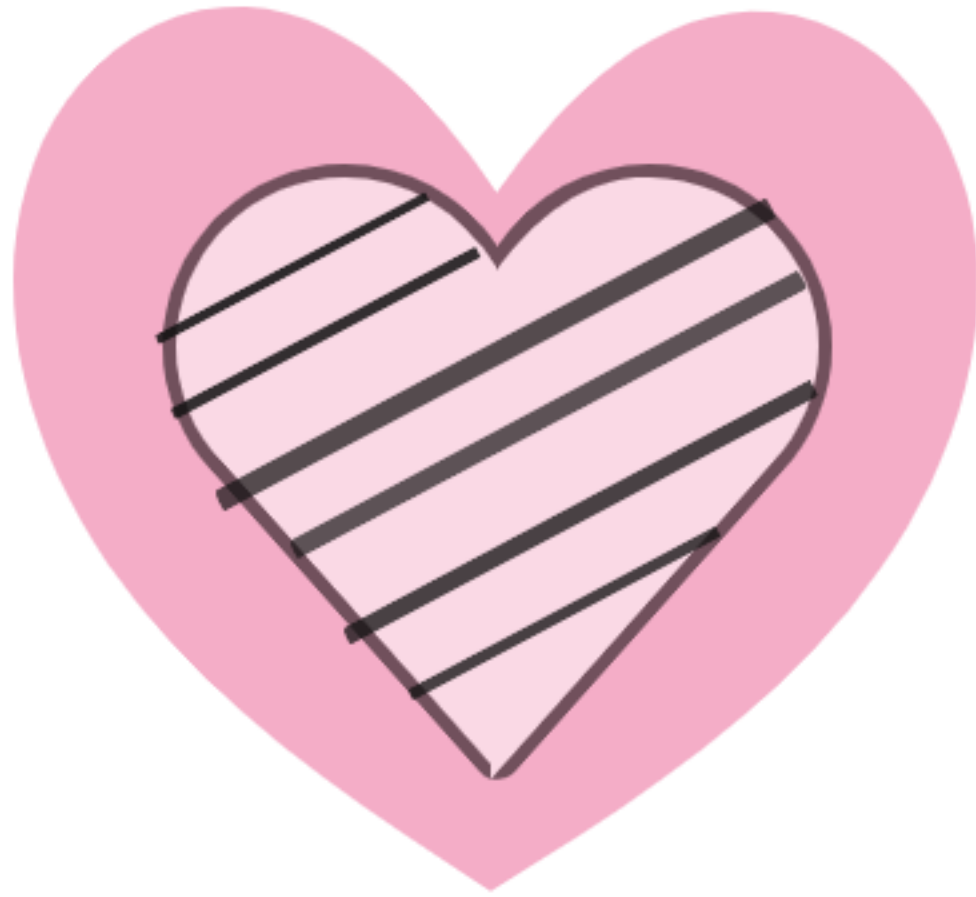


선  
을  
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속에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소중히 여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그림책을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해주는 사회가 자연스러워지기를 바랍니다.

\*\* 선을 넘다 :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몸을 만지거나, 공간에 침범하는 것  
친하지 않은 사이에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 등

본 그림책은 양천해누리복지관 옹해야(옹호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일) 모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림책에 참여한 발달장애인 청년들은 살아오면서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습니다.

2023년부터 사람과 만나며 대화 나누기를 좋아하지만 조금 서툰 발달장애인 청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인권을 배우고, 자조모임을 운영하면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림책을 통해 발달장애인이 살아온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이현준



우건모



송종현



안수영

작가 소개



김민희



임선욱



최미성

# 작가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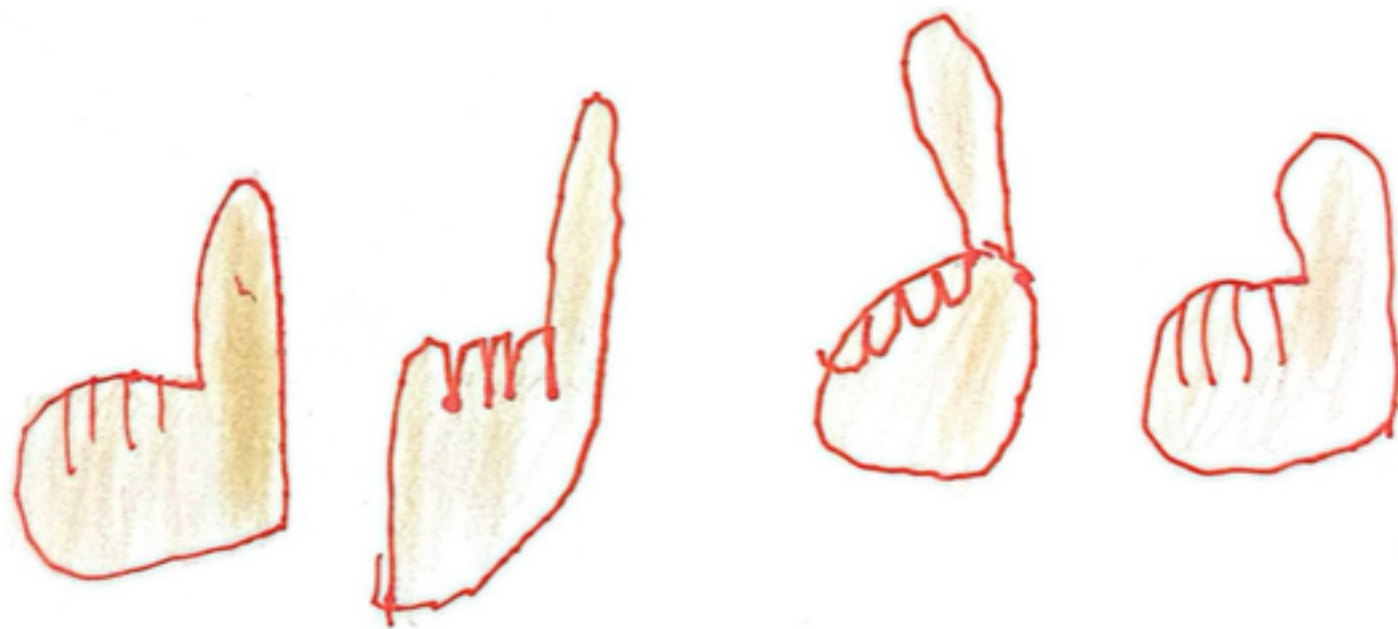
이 책을 부모님, 그룹홈 선생님, 복지관 선생님들, 카페 매니저님,  
또는 나를 장애가 있다고 놀리거나 속상하게 한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보며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주고,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상하거나 불편한 말들을 줄이고,  
장애인이라서 잘 모른다고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도 똑같이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지 마세요 작가 일동



사람들은 우릴 보며 이야기해요. "재네는 잘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일 때도 있고.. 선생님일 때도 있어요.

또는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감정을 느끼고, 말할 줄 알아요.

같은 사람이니까요.



₩  
월급

" 저는 우리나라가 금메달 땀을 때 !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또 월급 받을 때도 좋아요. 돈이 생기니깐.

돈을 벌면 순댓국 먹을래요. 국물 좋아요. "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옆 사람이 도와줬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친절하 사람이라 일 하고 있어요.

누구나 친절하 사람을 좋아해요."



"아빠가 삼계탕을 해 줬을 때

고마웠어요."

"아빠가 술 많이 먹었을 때.. 잔소리 듣기 싫어요.

아빠가 엄마를 때리기도 했어요."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하지 말라고 못 했어요."



"제가 엄마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제 전화를 차단했어요. 모르고 그런건데.....

억울했어요..."



"남자친구가 있고 싶어요.

남자친구랑 여자친구가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 **부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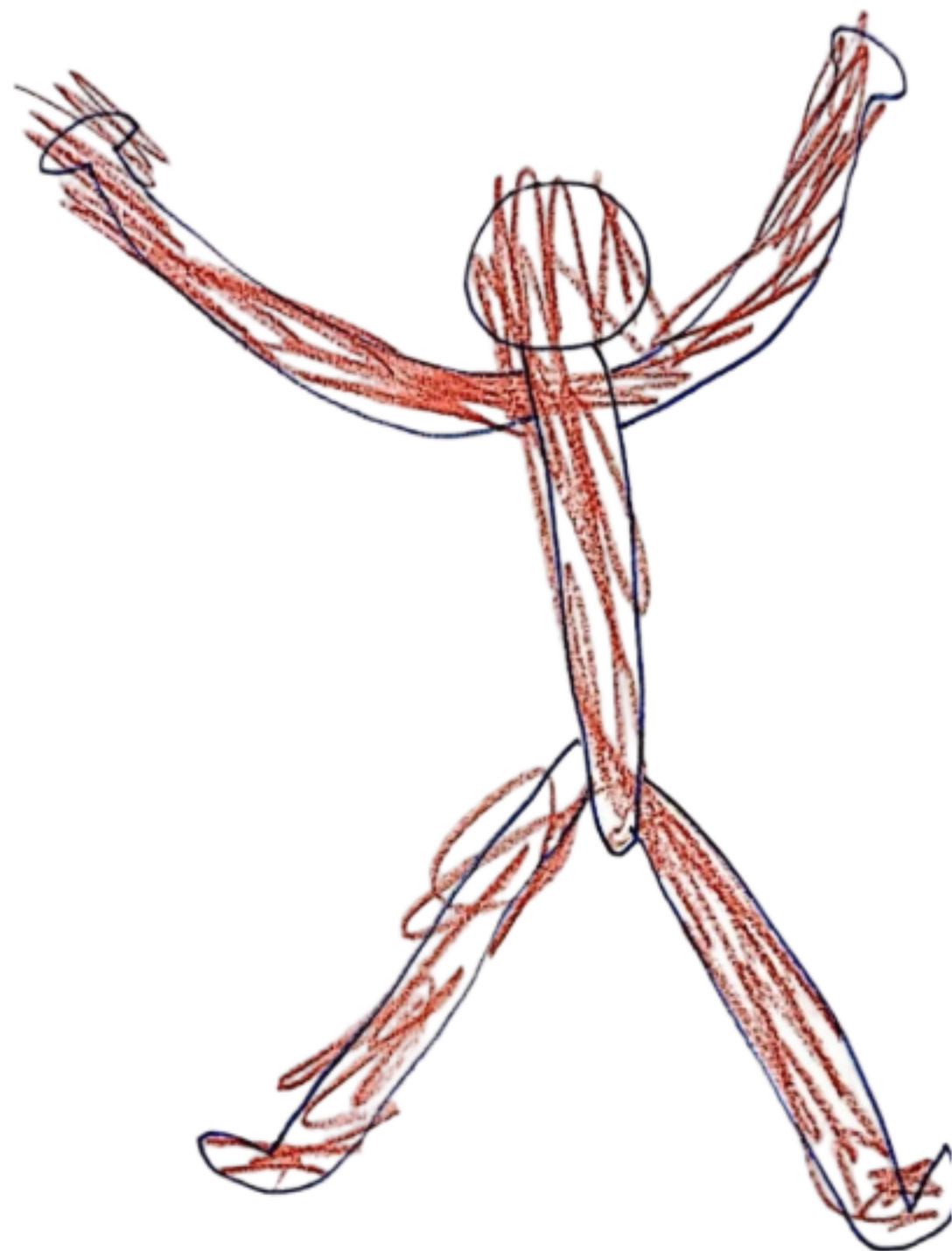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함께 있어서 좋아요. 그런데  
부끄러워요..."

"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을 처음 만났을 때  
떨리고 부끄러웠어요."

"선생님 만날 때도 내가 말을 해야 하는 데  
못 하는게 많아서 걱정도 되고 긴장되었어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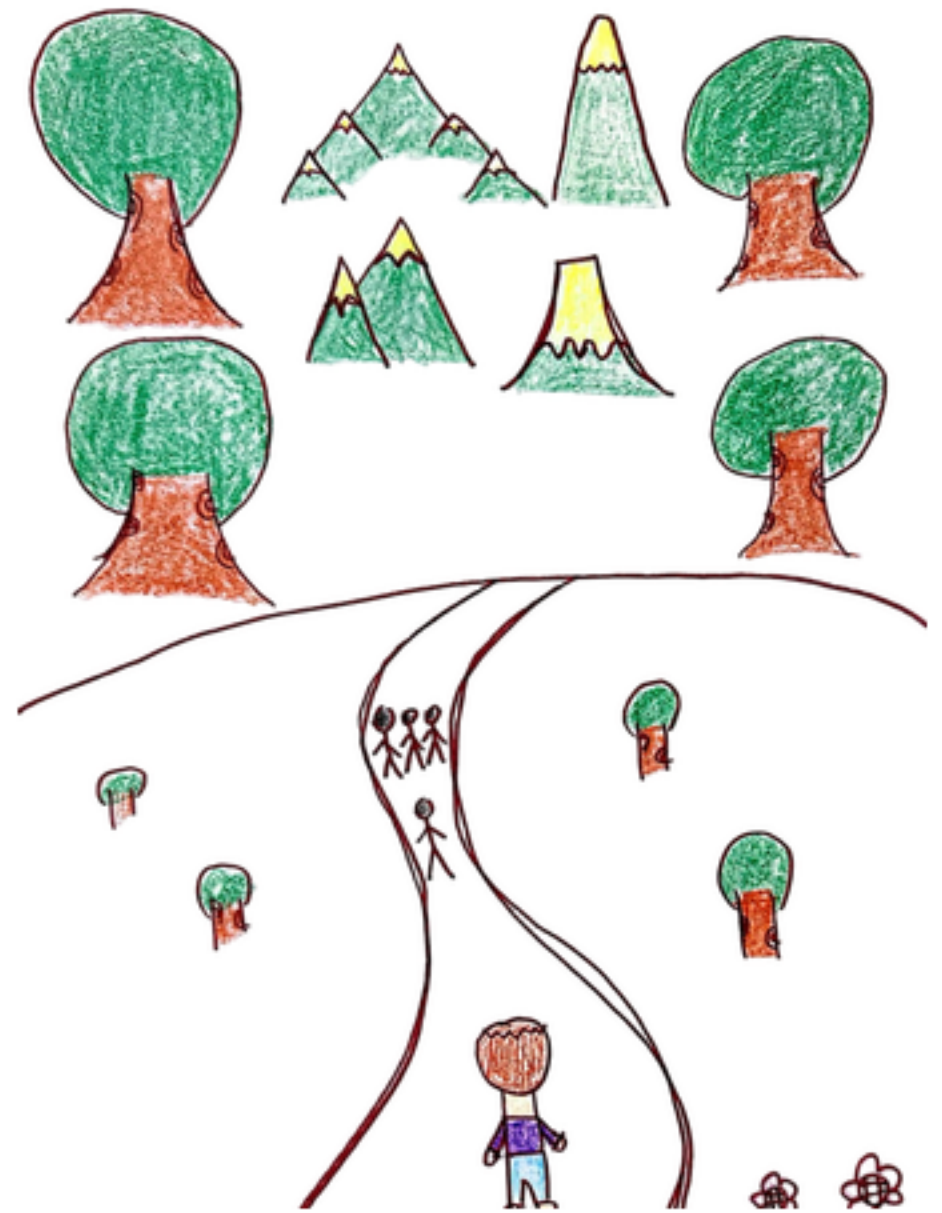


"누가 저를 건드리면 **화가** 나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교에서 장애인이라고  
놀림 받았을 때 힘들었어요."



"트래킹 프로그램을 갔는데  
혼자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떨어져 있으니까  
외로웠어요."



"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자전거를 새로 살 때 **걱정이** 돼요.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마음이 작아져요.** "

"혼자 해야 하고... 혼자 해내고 싶은데... 못 해서 매일 혼나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요... 교통사고 같아요."



"사기 안 당하고, 또 사고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나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 감정을 느낍니다.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들어주세요.

내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우리의 권리입니다.